

## Part 4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십시오” 하는도다 (계 22:17) (The Spirit and the Bride Cry "Come!")

### I.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교회에 있을 성령님의 일하심을 예언했다 (계 22:17)

- A. 계시록 22:17절은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언 중의 하나이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재림의 세대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성령님과 깊은 연합함 가운데 있으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행하실 일들을 말하며 행하게 될 것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 20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17-20)*

1.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분은 교회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신부임을 밝히고 계신다. 이를 위해서, 그분은 먼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신랑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셔야만 한다.
  2.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분은 예수님께서 권능 가운데 오실 것을 중보하고 계시며, 사람들에게 신랑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외치고 계신다.
  3. 주님의 재림 이전에, 성령님께서 역사가 가장 위대한 영혼의 추수를 이끌기 위해 역사상 가장 큰 기도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사 24:14-16; 30:18-19; 42:10-15; 62:6-7; 시 102:17-20; 슥 8:20-23; 12:10; 13:9; 눅 18:7-8; 계 5:8; 8:3-5; 22:17).
- B. 이 예언은 교회가 어떻게 일하게 될지에 대해 밝혀주고 있다 1)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며, 2) 신부의 정체성으로 세워져 있으며 3) 중보에 있어서 충성되며 4) 추수에 효과적으로 사역하며, 5)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의 유례없는 역동성에 참여하게 된다. 교회는 이 예언에 대해 순종하며, 이 예언을 말하며, 이에 대해 기도함으로 이 “예언을 지키게” 될 것이다(계 1:3; 22:7,9).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 22:7)*

- C. 마지막 때에, 성령님께서 교회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신부임을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조하실 것이다. 요한은 성령과 그 권속(가족)이 “오소서”라고 외칠 것이라 말하지 않았으며, 성령과 그의 군대, 왕국, 몸, 성전, 제사장이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영원토록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몸이며, 성전이며, 제사장이며, 왕인 정체성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며,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성령님과 역동적인 연합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하셔서 교회를 통해 권능 있게 역사해 나가실 것이다.
- D.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그분의 권능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계 3:21; 롬 8:17).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우리를 향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특권적인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 (Jesus, Our Bridegroom God)

E. 신랑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헌신과(그분의 마음을 나누시며, 집과 보좌와 비밀과 아름다우심을 나누심),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전심을 다한 사랑(순종)에 대한 것이다. 즉, 신랑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감정과, 사랑과 우리를 향한 갈망의 깊은 부분을 경험하라는 부르심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신 하나님으로서 선포하는데 있어 모든 관능적인 느낌과 해석을 거절한다(그분은 어느 누군가의 정부, 또는 남자친구가 아니시다).

II.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께 “오십시오!” 외치고 있다

A. 사도 요한은 성령과 교회가 두 가지로 “오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기록했다 :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시길 외치고 있으며(중보), 둘째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외치고 있다(선포).

*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 16 나 예수는 교회 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 20 이것들을 증거하 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엡 6:16)*

- B. 예수님께서 “오시길” 기도하는 것의 삼중 적용. 신랑으로서,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1. 우리 가까이(near) 친밀감으로 가까이 오시길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마음의 개인적인 돌파)
  2. 우리에게(to) 부흥으로 임하시길 (성령께서 부흥과 정의로써 임하시는 지역적인, 국가적인 돌파)
  3. 우리를 위해(for) 하늘에 오시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역사적인 돌파. 그리고 그분이 적그리스도의 압제와 부정을 완전히 멸하시고 제하시도록)

C.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기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권능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들을 풀어놓으심으로 적그리스도 제국의 그분의 대적들을 멸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도이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2 불이 켜를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적그리스도 제국)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3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출 19장의 시내산) (사 64:1-3)*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위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사 66:15)*

D.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진리는,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명령(decree)이며 기도이다(시 14:7; 45:3-5; 50:2-6; 53:6; 59:8-10; 72:5-8; 144:5-10; 사 2:12-17; 35:4-5; 40:10; 59:18-21; 60:1; 64:1-4; 66:15 등).

Part 4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십시오” 하는도다

꺾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사 35:4)

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사 40:9-10)

- E. 예수님께서 오실 것(그분의 권능의 돌파를 풀어놓으실 것)에 대한 부르짖음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다
  1. **예배** :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친밀히 오시길, 우리에게 임하시길, 우리를 위해 오시길, 우리의 사랑을 드려 구합니다.
  2. **중보** :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공의와 추수를 풀어놓아 주시길 구합니다.
- F. 문맥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재림에 대해 세 번 강조하신다(계 22:7,12,20). 그분의 재림에 대한 사실로 인해 요한의 중보의 영이 깨워졌고, 그가 부르짖는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20절).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신랑이시며, 왕이시며, 심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며, 우리 안에 긴급성을 일으켜 깨운다.

III. 성령과 신부는 사람들에게 “오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

- A. 요한은 17절에서 4가지 독특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각각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을 신랑이시며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로 부르게 될 것이며, 성도들(제자화를 통해)과 믿지 않는 사람들(복음전도를 통해)을 향한 것이 될 것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 B. **선언 #1** : 성령과 신부는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이는 교회가 성령님과 동역하며 연합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으며, 교회가 신부의 정체성 안에서의 중보와 예수님에 대한 선포(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를 하고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1.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의 메시지로 초청하는 것을 혼인 잔치에 근간을 두고 설명하셨다(마 22:1-13). 신부는 (혼인 잔치에서 최고 정점을 이루는)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 성령님과 동역할 것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며, 이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부르짖는 일로 드러난다.

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 어떤 임금과 같으니 3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 9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 대 10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약 4:7)

2. 성령님과 기도하는 신부가 함께 동역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낳게 될 것이다 (마 24:14; 계 7:9).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 책망하시며, 의에 대해 책망하시며,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요 16:8). 기도하는 신부들의 증거 없이는, 성령님은 목소리를 내실 수 없다. 또한 성령님의 기도와 권능이 없이는, 신부에게는 능력이 없게 된다.

C. **선언 #2** : “듣는” 이들은 중보자와 메신저로서 참여하게 된다. 우리들 각자는 듣는 삶을 기경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말함으로 이에 대해 참여해야 한다. 이 권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교회를 깨우는 데에 책임감을 가질 것에 대해 말한다.

...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 (계 22:17)

1. 각자 개인들은 그들이 듣는 만큼 반응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듣는 분량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하게 되는 분량이 될 것이다.

2.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권고하신 내용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이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었다(마 11:15; 13:9,43; 막 4:9,23; 7:16; 눅 8:8; 14:35; 계 2:7,11,17,29; 3:6,13,22; 13:9).

D. **선언 #3** : “목마른 자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며 나가야 한다. 그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단지 다른 이들을 신랑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로 부르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목마른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정기적으로 물을 축여야 한다. 그들은 메시지를 흡수해야 하며,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열 처녀에 대한 비유(마 25:1-13)와 연관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들이 신랑을 향해 일하는 중간에 기쁨이 바닥나버린다는 것이다. 물을 마신다는 것은 물을 작지만 정기적으로 흡수해야 하는 필요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 달 간의 물을 비축하기 위해 얇은 자리에서 수백 리터의 물을 마실 수는 없다.

...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 (계 22:17)

E. **선언 #4** : 물을 원하는 자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을 “취해야(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할 일은,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원리를 계시록 19:7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함과 동시에, 예비하는 것에 있어서의 신부의 책임이 강조된 부분이다.

...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것에 대해 부르신다(마 11:12). 하나님의 나라의 더 깊은 유익은 자동으로 받게 된다기보다, 이것들을 “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과정과 동일하다. 이를 취해나가는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일정을 조정하는 일, 하나님에 대한 옳은 패러다임을 기경해나가는 일,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요 8:32) 가운데 성장해나가는

Part 4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십시오” 하는도다

것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한글 KJV : 차지하느니라) (마 11:12)

- 2.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것들을 추구해나가는 영적인 맹렬함으로 인해 침범 당한다(이를 허용한다, 이에 대해 요구한다, 또는 이에 대해 상을 준다). 예수님께서서는 육체적인 맹렬함이 아닌, 영적인 맹렬함을 말씀하고 계셨다. 이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 자기 부인의 값이 얼마가 되건, 치를 각오가 되어있음을 말한다.
- 3. 과격한 순종은 우리의 세상적인 추구를 다 무너뜨리는 격렬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죄로 가득 찬 소망과, 자만심과, 이기심에 대해 강렬하게 맞서나간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시간과 돈을 쓰며, 우리가 안락함과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며 성적인 것을 드러내던 것들의 우선순위를 뒤바꿔놓는다. 이는 우리가 자라오면서 익숙해진 현상 유지라는 습관을 붕괴시킨다.

IV. 예수님에 대한 필수적인 계시 (계 22:16)

- A. 예수님께서서는 계시록 22:16절에 그분 자신에 대한 4가지 계시를 밝히시는데, 이는 또한 계시록 22:17절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16 나 예수는 ...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 (계 22:16-17)

- B. 첫 두 호칭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중적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다윗 이전에 존재하셨고 다윗의 왕국이 있도록 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다윗 이후에 태어나신 유대인이시다. 그분은 다윗의 가계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써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다(사 2:3; 4:2-6; 24:23; 27:13; 렘 3:17; 겔 43:4,7; 욥 3:17; 미 4:2; 슥 6:12-13; 8:2-3). 이 일에는 전 세계적인 군사적 충돌과 예루살렘을 향한 맹렬한 전투가 수반될 것이다(슥 12:3; 14:2).
- C. 마지막 두 호칭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깊이 연관되어 계시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증과 확증이 되실 것을 드러내고 있다. 광명한 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실 것이다. 광명한 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대 환란의 어둠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풀어놓으실 것이다. 새벽 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과 그분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의 새 날로 변화시키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되신다. 대 환란 동안에 그분의 영광이 풀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천년왕국의 새 날이 올 것에 대한 명확한 징후가 될 것이다. 새벽 별인 금성은 새로운 날이 밝기 바로 직전에 보인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대 환란)이 만민(열방들)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사 60:2)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벧후 1:19)*

D. 예수님께서서는 대 환란 가운데 광명한 별이 되시며, 이 땅을 천년 왕국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14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5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  
게 할 것이라 16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 (사 24:14-16)*

V. 신랑되신 하나님 앞에서의 노래

A. 마지막 때의 신부는 종종 열방을 향해 메시지를 노래할 것이고, 자신의 기도를 예수님께 노래할 것이다.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노래는 계시적인 노래이며, 사랑을 붙여넣는 노래이다.

B. 이사야 42장에서, 이사야는 지구적인 중보 예배 운동(10-12절)이 예수님의 재림(13절)을 준비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풀어놓으시도록 준비하게 될 것(14-15절)에 대해 예언했다. 이  
사야는 땅 끝에서 있을 예배 운동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밀접하게 연관될 이 땅의 5가지 지역들을  
강조했다. 섬들과, 광야의 작은 도시들이 포함한다. 게달과 셀라는 요르단(셀라)과 사우디아라비아(게달)  
의 이슬람 지역이다. 이는 추수를 향한 기도이며, 음악적이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이다.

*10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  
터 찬송하라 11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  
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 13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14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  
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험덱일 것이라 15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지진들)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사  
42:10-15)*

C. 이사야는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사 54:5; 62:5) 앞에서의 마지막 때의 중보적 예배 운동의 실제에 대  
해 예언했는데, 이것은 음악적이며(사 24:14-16; 26:1; 27:2; 30:29,32; 35:2,10; 42:10-12; 54:1),  
지속적이며(사 62:6-7), 전 지구적이며(사 24:16; 42:10-13), 선교적이며(사 54:13-14; 62:6-12), 신  
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부터 흘러나오기에 관계적(사 54:5; 62:5)이 됨을 볼 수 있다.

D. 이사야는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남편이심을 선포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을 위해 창조하셨  
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각이었는데, 하나님을 그분의 연약한 백성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계신 신랑이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었다.

1) 역자주 : NKJV에는 dawning light로 번역되어 있고, 스테디가이드 원본에는 이를 천년왕국으로 해석한다. 한글 KJV(불 속에서),  
KJV(in the fire), NKJV(dawning light)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한 번역본들은 동방(east)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 (사 54:5)

VI. 마지막 때 교회의 외침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 (아 8:13-14)

13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14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속히 오소서)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 8:13-14)

- A. 너 동산에 거한 자야 : 왕의 동산(정원)은 오직 초청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사적인 밀접함의 장소였다. 이는 아름다운, 관계와 안식의 친밀한 장소였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되, 가끔 방문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B.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 여기서 동무들이란 예수님께 가까이 살고 있는 자들의 말을 들으며 이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 C. 나로 듣게 하려무나 :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원수가 실패와 정죄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음성을 잠잠케 하는 것을 가만 두어서는 안 된다.
- D.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직접적인 예배와 중보의 부르짖음으로 응답하며, 그녀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길 부르짖는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녀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한 분이셨다.
- E. 노루와도 같고 : 그녀는 예수님께서 속히, 그리고 갑자기 오시기를 원하고 있다. 노루는 “사슴과 같은” 동물로써, 예민하며, 빠르며, 갑작스럽고 빠른 움직임을 가진 동물이다.
- F.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 그녀는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오시길 원하고 있다. 신랑께서는 모든 산들(방해물)을 정복하시며 그녀에게로 오셨다(아 2:8-9). 그녀는 그분께서 백마를 타시고 승리 가운데 오시는 왕으로서 오시길 갈망하고 있다(계 19:11-16). 사슴은 힘이 센 어린 말 또는 무스(moose, 엘크)를 말했다. 사슴과의 고대의 사슴(stag-moose)은 오늘날의 사슴보다 크기가 훨씬 컸다<sup>2)</sup>.
- G. 향기로운 산들에서 : “향기로운 산”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새 예루살렘을 말한다. 이 산-도성은 향기로 가득 찬(시 45:8), 거대하며 장대한 모습을 하고 있다.

VII. 마지막 때의 충돌

- A. 마지막 시대에 있는 큰 충돌은 두 “기도의 집”, 구 지구적 예배 운동 사이의 충돌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도와 예배 운동을 일으키고 계신다(눅 18:7-8; 계 8:4; 사 24:14-16; 30:18-19; 42:10-13; 54:1-13; 62:6-7).

2) 역자주 : 성인의 키보다 더 컸다.

Part 4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십시오” 하는도다

---

- B. 적그리스도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 세계적 거짓 예배 운동(계 13:4,8,12,15)을 일으킬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열방에 그를 예배하는 자들까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나라에 대한 완전한 정치적인 정복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나라들은 대 환란 기간 동안에 그를 향해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에게 저항해 나갈 것이다(단 11:40-45).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리라 (계 13:8)*